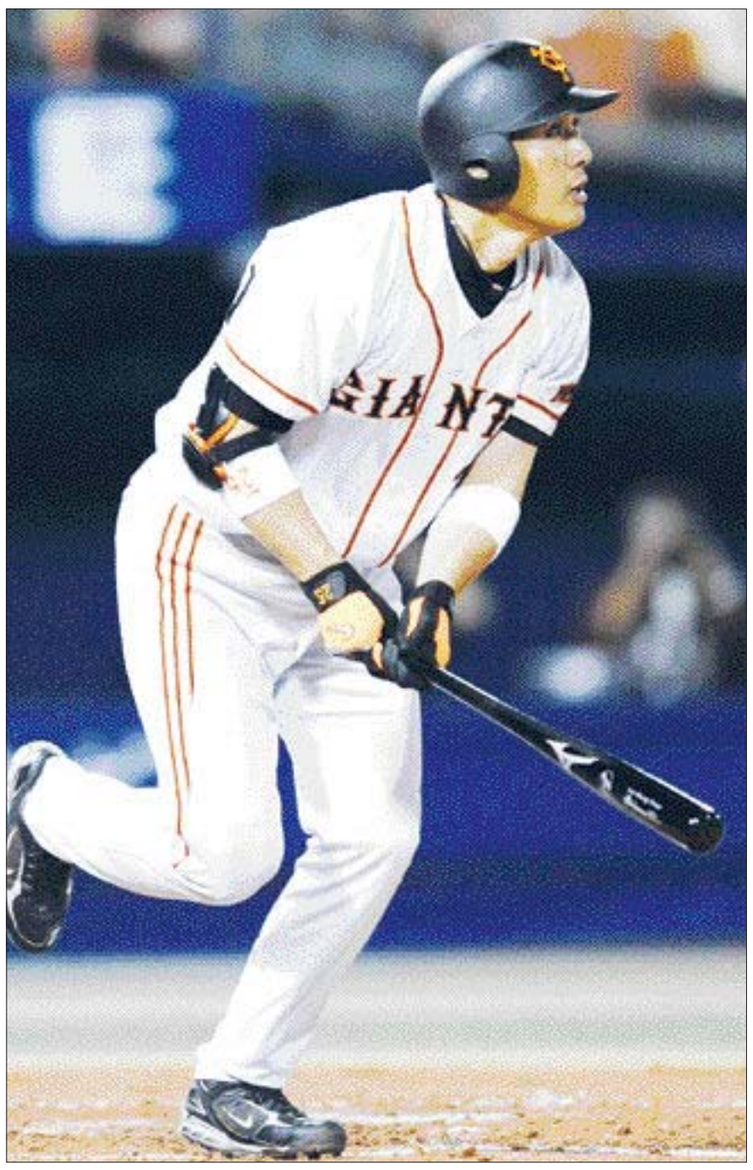
함평 나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광령IC 구간 광역 동행료 환불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이승엽이 16일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코하마와의 원정 경기에서 3회 2사 1·2루서 3점 홈런을 치고 있다. 이승엽은 4회와 6회에도 2점 홈런을 작렬, 일본 진출 이후 첫 3연타석 홈런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3회 3점…4회 2점…6회 2점

이승엽 3연타석 홈런

요코하마전 불방망이 과시

주니치 이병규도 투런포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승엽이 일본 진출 후 첫 3연타석 홈런을 쳐내며 시즌 막판 불같은 방망이를 휘둘렀다.

이승엽은 16일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이어진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방문경기에 1루수 겸 5번 타자로 선발 출장, 3회와 4회 스리런과 투런을 잇따라 친 데 이어 6회에도 투런 홈런을 쳐냈다. 시즌 3·4·5호.

1-0으로 앞선 3회초 2사 1, 2루에서 상대 선발 나스노 다쿠미가 던진 바깥쪽 커브(시속 108km)를 당겨쳐 3점 홈런을 만들어낸 이승엽은 이어 6-0으로 앞선 4회 2사 1루에서도 바뀐 투수 우시다 시게키의 바깥쪽 포크볼을 다시 잡아당겨 오른쪽 펜스를 넘겼다.

9-1로 앞선 6회에는 역시 2사 1루에서 루키 투수 아토리의 가운데 낮은 직구(시속 146km)를 받아쳐 중월 홈런으로 연결시켰다.

이로써 이승엽은 10일 만의 1군 복귀전인 14일 야쿠르트전에서 솔로 홈런을 친 뒤 복귀 3경기 만에 홈런 4개를 쓸어담으며 완전하게 타격감을 회복했다.

이병규(34·주니치 드래곤스)도 13일 만에 시즌 13번째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병규는 16일 아이치현 나고야 돔에서 계속된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와 홈경기에서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장, 1-0으로 앞선 3회말 2사 2루에서 한신 우완 선발 투수 후쿠하라 시노부의 복판 슬라이더(시속 132㎞)를 통타,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작렬시켰다.

지난 3일 야쿠르트 스왈로스전에서 솔로포를 때린 이후 13일 만에 나온 홈런이며 시즌 13호다.

추신수 투런포 등 2안타 추가…84안타

한국인 시즌 최다 안타 2개 남아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외야수 추신수(26·사진)가 2점 홈런을 포함해 2안타를 뽑아내고 메이저리그 한국인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에 2개차로 접근했다.

추신수는 16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 홈경기에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장, 1-0으로 앞선 5회말 2사 2루에서 2점 홈런(시즌 11호)을 쏘아올렸다.

이어 8회에도 우전 안타를 친 추신수는 이로써 시즌 84경기에서 84안타를 뽑아내 최희섭(KIA)이 2004년 126경기에 나서면서 세운 한국인 메이저리거 한 시즌 최다안타 기록(86개)에 2개 차로 다가섰다.

추신수는 최희섭이 세운 한국인 최다 타점 기록(46개)을 지난 13일 넘어섰고 홈런 기록(15개)에는 4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와 켈리 쇼팍(4회)의 홈런 두 방으로 3-1 승리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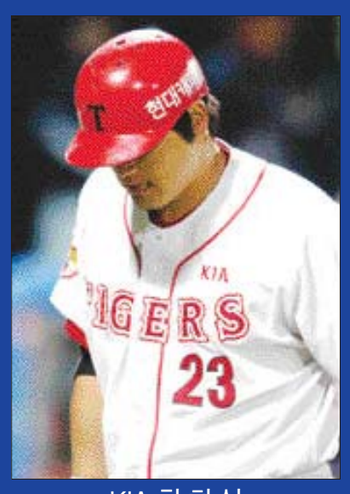
■ 빅리그 출신들 하반기 성적 희비 교차

기량 회복 '웃고' 부상 허덕 '울고'

두산 김선우

롯데 송승준

KIA 서재응



KIA 최희섭

4경기서 김선우 3승·송승준 2승 '쾌투 행진'

서재응·최희섭 부진…팀 4강 도전에 힘못써

LG 봉중근 팀 꼴찌 불구 '나홀로 역투'

2008 프로야구 빅리거들의 명암에 따라 소속팀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시즌 전반 부상과 부진으로 속을 태웠던 '새내기 빅리거' 서재응(KIA)과 김선우(두산)는 하반기 들어 확연히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한국 무대 복귀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두 투수는 지난 4월 1일과 2일 나란히 무등경기장 마운드에 올라 팬들에 첫 선을 보였었다.

'컨트롤의 마법사' 서재응은 4월1일 두산을 상대로 한국무대 데뷔전을 치러 6이닝동안 5피안타 1실점의 호투를 선보이며 합격점을 받았다.

반면 '써니' 김선우는 4월2일 KIA 타선을 맞아 4이닝동안 4실점 하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이후 2경기에 더 등판한 김선우는 3패만을 안고 2군으로 추락했다.

상반된 복귀전을 치렀던 두 선수는 지난 9월12일과 13일 다시 잠실 마운드에 나란히 출격했다.

12일 두산전 선발로 나온 서재응은 5회 급격히 구위가 떨어지면서 3-4의 스코어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와 패전투수가 됐다. 오른쪽 허벅지 통증과 팔꿈치 통증으로 전반기를 2군에서 마감했던 서재응은 하반기 들어 4경기에 등판해 7.50의 평균자책점으로 2패를 기록하고 있다. 하반기 대반격을 준비했던 KIA는 믿었던 서재응의 부진과 맞물려 마운드가 붕괴돼 이렇다 할 반격 한 번 펴보지 못하고 4강 꿈을 접었다.

김선우는 지난 13일 등판해 7과 3분의 1이닝동안 KIA타선을 3실점으로 막으며 승리 투수가 됐다. 하반기 4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3승을 챙긴 김선우는 2위 싸움을 하고 있는 팀의 히어로로 급부상했다.

2년차 빅리거 최희섭(KIA)과 송승준(롯데)도 상반된 활약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올 시즌 서재응과 함께 KIA 전력의 핵으로 꼽혔던 최희섭은 부상과 싸우느라 팀 4강 도전에 힘을 보태지 못했다. 최희섭은 겨우 55경기에 출전해 6개의 홈럼밖에 쏘아올리지 못했다.

올 시즌 43개 안타를 만드는데 그친 최희섭은 41차례나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팬들을 실망시켰다. 믿었던 최희섭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KIA는 극심한 타격 부진속에 싱겁게 4강 싸움에서 밀려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 5승5패로 시즌을 마감했던 송승준은 11승을 챙기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

하반기 4차례 등판해 4번의 퀄리티 스타트로 2승을 챙긴 송승준은 팀이 거침없는 질주로 가을 잔치를 예약하는데 힘을 보탰다.

꾸준한 활약으로 올림픽 대표팀으로 나서기도 했던 송승준은 하반기 들어 빅리거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는 김선우와 이번 주말 사직 마운드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4강 싸움에서 생존한 두 빅리거는 팀의 플레이오프 직행을 놓고 빅리거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된다.

또 다른 빅리거 봉중근(LG)은 팀의 꼴찌 행진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활약'을 선보이며 선전했다.

17일 현재 2.82의 평균자책점으로 방어율 부문 4위를 달리고 있는 봉중근은 올 시즌 10승을 챙기며 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 한국프로골프 상금왕 경쟁 '박빙'

1·2위간 불과 4천여만원 차이

내일 개막 인비테이셔널 관심

한국프로골프 2008년 시즌에 가장 큰 화제로 등장한 상금왕 경쟁이 추석 연휴를 마치자 마자 다시 불붙는다.

상금랭킹 1위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과 2위 황인춘(34·토마토저축은행)은 18일부터 나흘동안 강원도 횡성 오스타골프장 남코스(파72·7천275야드)에서 열릴 한국프로골프 한중투어 KEB 인비테이셔널 2차대회에 나란히 출전한다.

시즌 상금 2억8천360만원을 쌓은 김형성과 2억4천344만원을 챙긴 황인춘은 불과 4천만원 차이로 상금 1,2위를 달리고 있다. 3위 배상문(22·캘러웨이)이 황인춘에 1억원가량 뒤져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이다.

김형성과 황인춘은 둘다 이번 대회 우승상금 8천만원은 요긴하다. 김형성은 황인춘과 격차를 더 늘리겠다는 심산이고 황인춘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렇지만 우승 후보가 김형성과 황인춘 둘 만은 아니다. 올림픽기간 휴식을 마친 뒤 부쩍 힘이 붙은 40대 노장 트리오 강욱순(42·삼성전자), 신용진(44·삼화저축은행), 유종구(41·토마토저축은행)도 우승을 노리고 출사표를 냈다.

우승없이도 상금랭킹 4위와 5위에 포진한 강성훈(21·신한은행)과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도 시즌 첫 우승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연합뉴스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2008 수원 추석전국체급별장사 씨름대회' 청룡장사 결승전에서 황규연(현대삼호중공업)을 3대2로 이기고 장사 자리에 오른 윤정수(수원시청)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정수 '청룡장사' 되찾다

수원추석장사대회

윤정수(23·수원시청)가 '2008 허벌라이프 수원추석장사대회'에서 청룡장사 타이틀을 되찾았다.

윤정수는 16일 경기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청룡장사(105kg 이상) 결승전에서 노장 황규연(33·현대삼호중공업)과 마지막 판까지 가는 접전 끝에 3-2로 힘겹게 이겼다. 가장 무거운 체급인 청룡급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윤정수는 올해 설날 장사대회 이후 우승이 없다가 7개월여 만에 꽃가마를 탔다.

10살 아래인 후배와 맞붙은 황규연은 2006년 9월 민속씨름 금산인삼장사대회 이후 2년만에 장사 타이틀을 노렸지만 정상 문턱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한편 프로팀 현대삼호중공업은 황규연이 결승에서, 최병두가 4강에서 각각 패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단 한개의 황소 트로피도 가져 가지 못했다.

◇최종순위 ▲장사=윤정수(수원시청) ▲1품=황규연(현대삼호) ▲2품=김승현(연수구청) ▲3품=최병두(현대삼호) ▲4품=정원용(기장군청) ▲5품=장성복(동작구청) ▲6품=노진성(울산동구청) ▲7품=유승록(용인백옥쌀)